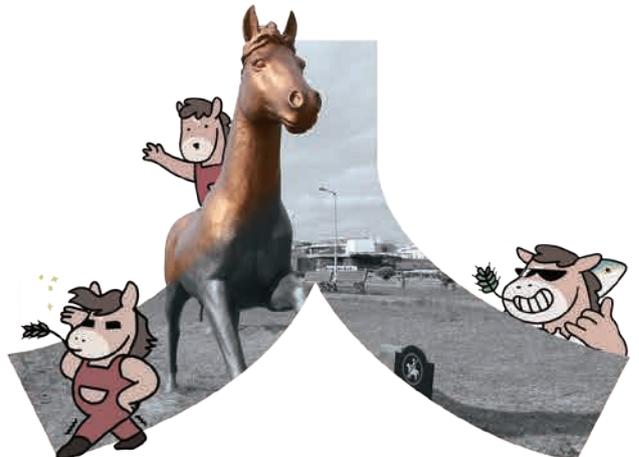


제주 - 도시 - 재생

이음, 제주



TRACK.2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사업 추진현황

(2021. 12. 기준)

활성화 지역 지정

뉴딜 제주도 용담1구(서문지구) |
"탐라의 중심, 제주의 관문" 용담 도시재생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제주도 원도심 |
모관지구(일도1동, 삼도2동, 건입동 일원)
오래된 미래 모관, 옛 것을 살려 미래를 일구다

뉴딜 제주도 남성마을 |
다시 돌아와 살고 싶은 남성마을

소규모 재생 제주도 한림1리
공동체공간 조성을 위한 세대공감 활성화 사업

뉴딜 서귀포시 대정읍 |
신영물 스토리와 다시 사는 모슬포

뉴딜 서귀포시 월평동 |
흔디 손심영! 지켜진 월평마을 만들기

뉴딜 제주도 건입동(건입동 일대)
김만덕의 일이 살아 숨쉬는 행복한 마을

예비 제주도 일도이동 |
주민 스스로 돌봄 공동체플랫폼 구축

뉴딜 제주도 신산머루 |
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인정 제주도 함덕리 |
함덕에 쏙 공감센터 조성

뉴딜 서귀포시 중앙동 |
주민이 함께 달리는 중앙동네 예.체.능

다시 도시, 진짜 재생

도시는 활기넘치던 그때로 돌아가기 위해 꿈틀거립니다.
하지만 도시 속 사람들은 그때와는 다릅니다.

좀더 지구를 아끼지 않으면 일상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깨달음과
좀더 이웃을 위하지 않으면 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은
도시 속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를 반영한 일상을 재생하기 위해 우리는 관계를 복원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커뮤니티와 거버넌스에 집중해 우리의 삶터를 모두에게 이롭게 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우리가 더 오래 행복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CONTENTS

02

[커버스토리] 다시, 함께 다시, 시작

04

[도전] 원도심 회복이 곧 내일의 회복

06

[스타트업] 원도심에서 만나는 세렌디피티
철성로 지도
제주랩 / 다물 / 풀고레 / 캠프루 / 섬마을 과자점 /
금정아트 민화공방 / 코샷 / 끄티 탐동
로컬의 창업가와 함께하는 도시재생
제주 원도심에서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22

[건입동] 제주의 시작 - 건입동
건입동 마을 도시기록 아카이브 - 3D 스캔
새로운 문명의 시작 메타버스
건입동 주택돌봄서비스

28

[도시재생과 주민커뮤니티가 만난 해외사례]
일본 나가하마 쿠로카베

30

[대정의 도전]
대정의 몽이 이모티콘

32

[칼럼] 오래된 미래, 새로운 과거 그리고 다시 도시재생

34

제주의 도시재생 업데이트

다시, 함께 다시, 시작

2020년 벽두부터 창궐한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뒤집었습니다. 2년에 걸친 팬데믹은 인류가 근대 이래 공통으로 처음 체험하는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곤경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모순이 백일하게 드러났고, 하던 대로는 미래가 없다는 통렬한 각성이 생겼습니다. 지칠 줄 모르고 자본의 자기증식에 매진해온 지구자본주의가 생명체도 아닌 바이러스 '따위'에 의해 잠시 그 증식을 멈췄습니다. 상품, 자본,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멈췄고 통합의 경계를 지구 전체로 넓혀가던 급속한 세계화의 추세를 일순간 정지시켰습니다.

어떤 변화는 일시적이겠지만, 어떤 변화는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중 일부가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직감합니다. 세상은 다시는 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재난은 지구 전체를 범위로 했습니다. 지구인이라면 누구도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간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와 충돌해도 놀랄 뿐 우리의 재난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상황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지구인이 당사자가 되어 이동제한으로 몸을 가두고, 경제활동을 중지해야 했습니다. 누구도 관찰자로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지구가 하나의 세계임을 깨닫도록 강제되고, 열외없이 누구라도 다른 누군가와 엮여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호모사피엔스가 육체적으로 우세한 네안데르탈인을 전멸시키고 지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야기와 믿음을 공유하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공동체의 힘이 인류의 생존과 진화를 만든 원동력인 것이지요.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치며 발전해온 이 공동체의 역할이 21세기에 들어서며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사라져가던 공동체를 부활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명령을 내리는 듯 합니다. 이타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을 챙기고 이웃을 돌보는 것은 돌고 돌아 나를 지키고 돕는 길이고, 온 사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나도 건강할 수 없다는 것을 잔인한 방법으로 일깨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골목에 벽화를 그리고, 사람의 발길이 뜸해진 거리를 사람으로 채우려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 재생을 위해서입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러다이트 운동처럼 파괴를 통한 과거로의 회귀를 뜻하지 않듯, 도시재생사업은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미래 지향의 발전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사람간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저 예전보다 더 나아지고, 더 연결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희망은 가장 강력한 실천입니다. 도시재생이 도시에 사는 사람에게 품는 그 희망처럼.

새로운 시대는 이제 시작합니다.

원도심 회복이 곧 내일의 회복

K-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휩쓸었다. 극 중 1번 오일남은 참가자들이 숙소에서 싸우자 높은 곳으로 올라가 소리친다. 이제 그만하라고. 계속하다가는 우리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오징어 게임>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로 이제는 밈meme이 되어 각종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지구를 덮치자 사람들이 멈췄다. 축제가 사라졌다. 결혼식도 장례식도 사라졌다. 회식도 사라지고 동료도 사라졌다. 그러고나니 재난 영화의 잿빛 잔해만 남은 도시가 아니라 거짓말처럼 푸른 하늘과 상쾌한 공기와 새하얀 구름이 아침을 열었다. 팬데믹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지속해온 패턴을 버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그것은 지구가 인류에게 보낸 당장 멈추라고, 그렇지 않으면 파멸이라는 절규였다. 자연을 정복하고 소유하라는 데카르트가 아니라 자연과 전쟁을 벌이는 것은 미친짓이라는 에라스무스가 맞다는 것을 우리의 생명과 일상을 희생하고 나서야 깨달을 수 있었다.

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기업이다. ESG(환경Environment 소셜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친환경, 사회적책임,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 대기업만 그런 것이 아니다. 동네의 작은 가게도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고, 지역과 상생하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구조를 취한다. 제주 원도심 칠성로에 새로 생기는 이 작은 회사들처럼.

소비자도 달라지고 있다. 이제는 번지르한 브랜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우수성을 확인한다. 조금 비싸더라도 지역과 지구에 도움이 되는 회사의 제품을 찾는다. 관광이 아니라 여행을 할 준비가 되어있고, 현지 인처럼 살아보는 것은 이미 모두가 익숙해졌다. 그 안에서 물건이 아니라 경험을 수집하고 자신만의 서사를 만들어간다. 그리고 그것을 가상공간에 과시한다.

스스로가 달라진 소비자인 창업가들이 제주 원도심을 밝힌다. 플라스틱은 제주의 쓰레기를 줍는 러너들의 티셔츠가 되고, 푸드 마일리지를 줄인 제주산 원물은 떡과 밥, 디저트가 된다. 제주의 자연 가까이에서 캠핑을 즐기되 이 제주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는 것에도 앞장서고 공연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우리의 그림으로 시간을 들여 제주를 간직하고자 한다.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의 스타트업 챌린지, 리노베이션 스쿨, 칠성로 문화야시장 사업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창업가들을 키워냈다. 그리고 이들이 원도심에 뿌리내리는 중이다. 가지가 튼튼해지고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있다.

원도심이 다시 복적일 것이다.
더이상 코로나19가 두렵지 않기때문이 아니라 반드시 원도심을 찾아야 할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원도심에서 만나는 세컨디피티

제주 원도심의 칠성로는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었다.
 한 때는 제주의 가장 큰 변화가였으나
 이제는 누구도 찾지 않는 재미없는 길 이 되고 말았다.
 빈 점포는 늘어가고 불이 꺼졌다.
 하지만 이 또한 과거의 기억일 뿐이다.
 지금의 칠성로는 변화하고 있다.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합심하여
 칠성로에 새 숨을 불어넣었다.
 칠성로의 오랜 상인들과 원도심에서 희망을 꿈꾸는 창업가들이 모여
 이 거리에 재미있는 풍경을 만들었다.

커뮤니티를 원한다면,
 문화예술을 찾는다면,
 제주만의 색깔을 기대한다면,
 색다른 제주여행을 바란다면,
 새로워진 옛길, 칠성로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이곳에서 우연한 행운, 세렌디피티 serendipity 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제주 원도심 칠성로에는
 당신을 둘러싼 알고리즘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당신의 새로운 취향이 될 수 있는
 '신상'이 가득하다.

지구를 살리고, 지역을 보듬고,
 이웃을 챙기고, 우리를 아끼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고티 탑동
로컬 크리에이터를 위한
복합문화공간

제주책방

제주사랑방

세상에서 가장 큰 책방 X 종이잡지클럽

동네책방의 성장을 돕고
누구나 찾아와 독서할 수 있는 독서문화 플랫폼

생느행

청소년 문화카페

스튜디오 오

크리에이터를 위한
오픈 스튜디오

코샷

고소한 제주 스타일 떡 카페

풀고레

여행기반형 제주 식도락
라운지 & 전통주 PUB

오각집

칠성로 문화야시장 거점공간으로 복합문화공간

제주랩

러너들을 위한 제품을 판매하는
제주 러너들의 베이스캠프

그린비즈

제주 감귤꽃을 활용한 상품 제조 및 판매

농업회사 법인 코샷

제주산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로컬푸드 전문 카페

뉴른

칠성로를 가상현실로 소비자들과 연결하는 콘텐츠 플랫폼

엔터테인먼트 3IN

칠성로를 홍보하고 방송하는 영상 스튜디오

트링크

위케이션 플레이스 제주기지

픽처플레이

합하게 결제하는 칠성로

제주세오

도내 로컬식품 출시 전 시제품을
시식 및 평가할 수 있는 소품과 카페

금정아트 민화공방

민화 소재를 활용한 클래스 운영
및 민화 관련 소품 판매

다물

우쿨렐레 공연, 전시 등
문화와 예술이 있는 복합문화공간

심지

오랜 역사의 감성 카페

섬마을과자점

제주 식자재를 활용한
다쿠아즈 등 디저트 판매

포스트아일랜드

제주다운 제품을 모아 판매하는
핸드메이드 기념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박초밥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도민의 식당



마음 맞는 이들과
몸에 맞는 페이스로
제주랩

제주랩은 러닝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기업이다.
제주의 첫 러닝 크루로 모인 청년들이
커뮤니티형 액티비티 콘텐츠를 제공한다.
40대 이상이 '러닝 클럽', '달리기 동호회'를 만든다면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은 '러닝 크루'를 조직해
그들만의 방식으로 달리면서 세상과 소통한다.



달리기는 다른 스포츠와는 달리 몸뚱
이 하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 남녀
구분을 둘 필요도 없고, 실력에 따라
다른 훈련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두 발로 할 수 있는 만큼, 내 숨이
견뎌낼 만큼 뛰면 그것이 달리기다. 힘
들면 멈추면 된다. 그 무엇보다도 정직
하다. 혼자 해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혼자 하는 러닝 역시 '함께'라
면 두 다리에 힘이 더 실린다. 페이스를
맞춰보고, 그렇게 조금 빨리, 조금 천
천히 보폭을 맞추며 뛰다보면 금새 마
음도 맞는다. 한 사람이 뛰다가 멈춰서
서 쓰레기를 주으면 곧 뒤따라오던 이도 함께 한다. 플로깅plogging('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plocka upp과
영어 조깅jogging을 합성한 말로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운동)을 제주랩은 '뛰멍 치우멍' 캠페인으로 만들었고,
나이가 페플라스틱에서 뽑은 원사로 만든 티셔츠를 만들어 판매한다. 그저 좋은 뜻만 담은 게 아니라 러너들에게
딱 맞는 기능을 담아 예쁘기까지 해 제주섬의 안녕을 바라는 러너라면 사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제주랩의 '랩'은 Run And Base의 앞자를 딴 'RAB'로 제주 원도심 칠
성로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오각집에 제품들이 입점해있다. 사통팔
달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에 뒀 수 있는 곳도 많은 원도심은 러닝 베
이스가 되기에 적합했다. 하지만 원도심이 제주랩의 생각만큼 건강
한 것은 아니었다. 상권은 죽었고, 콘텐츠는 식상했다. 그래서 제주랩
은 원도심을 선택했다. 건강하지 않더라도 처음에는 500m, 다음에
는 1km, 언젠가는 50km를 뒀 수 있는 건강체질을 만드는 것이 러닝
의 힘이니가. 이를 위해 제주랩은 원도심의 기존 상인들과도 시너지
를 낼 수 있는 콘텐츠 기획을 할 생각이다. 함께 페스티벌도 열고, 프
로그램을 준비해 사람들이 모여 원도심과 칠성로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한창 몸을 푸는 중이다.

제주랩은 커뮤니티에서 시작한 기업이니만큼 이미 팬이 많다. 또 육
지와 해외의 러닝 크루와도 쉽게 연결된다. 또 러닝이라는 같은 관심
사에서 확장되는 다양한 이야기거리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어낸다. 따로 또 같이 뛰는 런택트 제주, 마라톤 페스타, 캠핑, 오름 트
레킹, 트레일 러닝 등 제주의 자연을 두 발로 '함께' 즐기고자 한다면
제주 원도심, 칠성로에 위치한 제주랩의 문을 두드리지 않고는 쉽지
않다. 매주 한번씩 함께 달리기만 해도 된다. 제주에 와서 뛰고 싶다
면 그저 이번에만 함께 뛰어도 된다. 그러다 간혹 제주랩이 준비한 지
구의 건강을 생각한 굿즈를 구입하고, 당신의 건강을 고려한 건강 쥬
스를 마신다면 더욱 좋겠다.

러너들의 베이스, 제주랩이 지구와 제주의 원도심과 당신의 건강을
위해 오늘도 뚝다.



익숙한 원도심에서 새로운 문화의

다물

손흥민만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김연경만 배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때 엘리트 스포츠에만 집중했던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양한 스포츠 동호회로 생활체육이 일상이 되고 있다.

예술 역시 마찬가지다.
연극 관람을 하고 공연을 보던 관객이
이제는 스스로 배우가 되거나 연주자가 된다.
생활예술이 가까워졌다.

생활예술 플랫폼 '다물'은 작은 별들의 무리라는 뜻이다.
그동안 큰 별, 즉 스타에 시선을 주었던 이들이 스스로 별이 되어
모여 연주하고 전시한다.
여전히 제주 중장년층에게는 가장 익숙한 거리 칠성로에서 낮에는
생활인이었던 이들이 저녁에는 예술가가 되어 반짝인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지역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이 있
다면 누구에게라도 문이 열려 있는 곳. 칠성로의 상인들과 원도심
의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서로가 서
로의 지지자가 되는 곳. 다물의 예술이 원도심을 비춘다.

로컬의 창업가와 함께하는 도시재생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김진아 팀장

지난 5년간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제주 원
도심에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사업
을 진행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방점을 찍은 것은 <도
시재생 창업생태계 조성사업>이다. 쇠퇴지역에서의 창업
은 매우 어렵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것 또
한 쉽지 않았다. 지역조사·분석 등 오랜 준비기간이 필요하
고, 지역주민과 오랜 소통으로 빈 공간을 발굴해야 하고, 창
업가를 위해 여러 창업지원기관과 손발을 맞춰 협업해야 한
다. 그리한 후에도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에는 시간이 쓰인
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에서 창업지원은 지역에 활력을 회
복하는 가장 궁극적인 일이다. 행정의 지원이 끊긴 후에도
지역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는 쇠퇴지역의 빈 점포를 활용하는
공간 창업가를 집중 지원한다. 더불어 지역 기반 비즈니스
모델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필요한 기능을 실현할 사
업영역 또는 지역에 새로운 가치를 찾아 브랜딩하여 사람들
모이게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창업가를 찾는다. 이들이
도시재생 지역에서 일하고 관계 맺으며 삶을 꾸리며 도시재

생의 혁신 주체가 되어 자생적으로 도시의 활력을 회복해나
가는 것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7년부터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하여 다양한 방
법으로 창업가를 지원했다. '리노베이션 스쿨 in Jeju', '도시
재생 스타트업 챌린지' 등 창업가에게 필요한 교육 컨설팅을
비롯해 상생협약 체결을 통한 공간 지원, 500~1,000만원
상당의 사업화 자금도 지원했다. 칠성로를 중심으로 창업을
완료한 16팀과 다양한 협업사업을 연계해나갈 예정이다. 이
후에는 원도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 전역으로 도
시재생 창업생태계 조성사업을 확산하여 다양한 사업모델
로 진행할 예정이다. 매년 상반기에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와 창작 활동을 통해 제주에 새로운 콘
텐츠를 공급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혁신 창업가들
이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



제주의 집밥, 집밥, 여기 아니면 없어요

베지근연구소의 풀고레

산지천 옆, 칠성로의 한 귀퉁이에 '풀고레'라는 낯선 이름의 매장이 오픈했다. 술고래를 연상시키는 이 단어는 제주어로
'젖은 곡식을 가는 맷돌'이라는 뜻이다. 제주 음식의 가장 중요한 도구인 맷돌을 이름으로 내건 이곳에서는 예비사회적
기업 베지근연구소가 그 명맥을 이어가고자 하는 제주할망 집밥을 판매한다.

제주에서는 흔히 쓰이는 말이지만 육지사람이라면 그 짐작조차 하지 못하는 맛 표현 '베지근'. 기름진 국물을 먹었을 때
입에 기름기가 돌면서 배가 따뜻해지는 그 맛을 제주 사람들은 '베지근하다'라고 한다. 그 표현처럼 따뜻하고 정겨운 제
주 음식을 연구하는 베지근연구소는 그동안 시장을 전문가와 돌면서 제주의 역사와 식재료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제주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장 탐방 쿠킹 클래스'를 운영하고, 지역의 손맛 뛰어난 할머니를 모셔와 그의 인생과 음식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는 할망식(食) 워크숍 등을 진행해왔다. 낮시간에는 여기에 해녀 워크숍, 전통주 워크숍 등 다양한 쿠
킹 클래스를 풀고레에서 진행한다. 해가 진 후에는 제주 음식과 제주 전통주를 함께 선보여 예약하지 않고도 제주의 식
문화를 즐길 수 있다.

관광객을 위한 오메기떡이 아니라 진짜 검푸르스름한 차조로 만든 오메기떡, 메밀에 팔소를 넣어 만두 모양으로 빚은 세
미떡, 그리고 제주의 가문잔치 음식 독새기 고기튀김에 오메기술, 오메기청주와 꿀, 생강, 참기름, 달걀을 섞어 발효시킨
오합주 등 지금의 제주에서도 쉽게 만나지 못하지만, 여전히 제주의 가정집에는 살아있는 제주 음식을 모던하게 해석해
정성스레 만든 음식을 만날 수 있다.

원도심에서 기념품만 사던 당신, 원도심을 그냥 지나치던 당신.
진짜 제주를 오감으로 느끼려면 풀고레에 들러 시간을 써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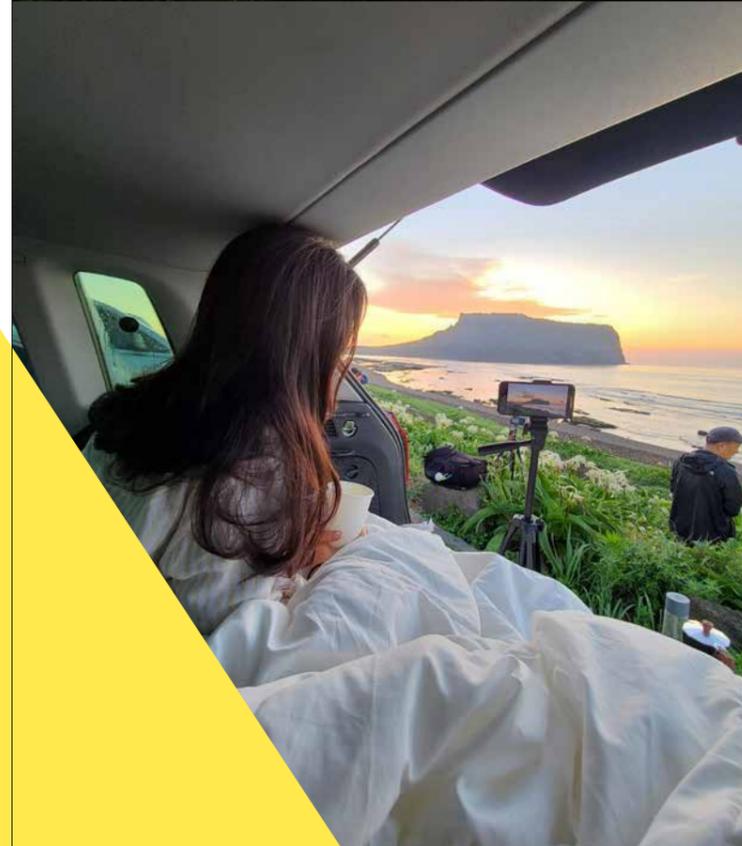
어른들의 소꿉놀이, 캠핑은 제주에서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

캠쓰루

바쁜 일상, 반복되는 스트레스,
답답한 도시를 떠나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늘고 있다.
낮선 이와는 만나지 않아도 되고,
코로나 블루를 떨쳐낼 수도 있어 인기다.
하지만 캠핑을 즐기려면 텐트에, 타프, 침낭,
의자와 탁자, 코펠에 스토브, 난로...
너무 많은 장비에 준비부터 지친다.
거기에 제주까지 가서 하는 캠핑이라면,
이 모든 장비를 싣고 비행기까지 타야한다면,
캠핑은 휴식은 커녕 고생이다.

이제 서른.
건축을 전공하고 건설회사를 다니다 지친 청년은 제주에서 희망을 본다.
제주 하늘을 덮고 잠이 들고, 제주 바람을 곁들인 커피를 마시는
제주에서의 캠핑을 좀더 많은 사람이 경험하게 하고 싶었다.
그저 멍하게 아무일도 하지 않으면서 지친 마음을 햇빛에 널어 뽀송해지고 싶을 때
캠핑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싶었다.

청년은 직장생활을 하며 모은 돈을 모두 털어 넣고, 은행대출도 받았다.
태어나 처음하는 창업에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튼튼한 텐트처럼 든든했다.
넘어져도 일으켜 줄 선배가 있고,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쳐도 등 두드려줄 동료가 있다는 생각에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었다.



덕분에 맘에 드는 곳에 집을 짓고
음식을 만들어 먹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이제 필요한 것은 집 떠난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뿐이다.
캠쓰루가 캠핑과 피크닉을 위한
모든 장비를 대여하기 때문이다.

불멍, 물멍, 숲멍, 달멍 등
제주의 자연이 준비한 것만으로 조금 부족하다면,
캠쓰루가 준비한 테마 캠핑을 함께 할 수 있다.
캠린이도 쉽게 캠핑에 입문할 수 있고
캠고수도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기획했다.
그렇게 자연을 아끼고 지역과 상생하는
공정캠핑 문화를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자 한다.

일단 떠나자.





제주를 기억하는 가장 다정한 방법

섬마을 과자점

철성로 초입에 제주를 그대로 담은 디저트집이 오픈하자 조금은 칙칙했던 철성로가 환해졌다. 바로 섬마을 과자점 덕분이다.

사람들이 제주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한라산이다. 제주 사람들 역시 한라산을 보고 자라 한라산을 보며 커 왔다. 그래서 제주가 곧 한라산이라 생각되기도 한다. 그 때문일까? 제주를 빙수에 담을 때는 한라산 빙수가 되고, 케이크도 한라산 모양이다. 제주도의 대표 소주 이름은 한라산이고, 제주 스타벅스에서는 한라산 음료와 한라산 머그를 판매한다. 온통 한라산 일색이다. 하지만 가장 제주다운 곳은 바다를 끼고 있는, 화산섬의 특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성산일출봉 아닐까? 너무 높고 거대해서 맘 먹어야 하는 한라산보다, 낮으막해 쉬이 오를 수 있고, 조금만 떨어지면 그 전체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섬마을 과자점의 김지은 대표의 생각이었다.

긴 시간 육지와 제주에서 과자와 빵을 만들었던 청년은 제주의 재료와 그 건강함을 성산일출봉으로 형상화해 다푸아즈를 만들었다. 첫 창업이다. 그동안 근무했던 호텔에서 하나의 메뉴를 고객에게 전하기 위해 여러차례의 결재라인을 거쳐야했던 것에 비하면 지금 '내 가게'에서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재료

에 맞게 만드는 재미는 여간 쓸쓸한 것이 아니다. 매일 새로워지는 메뉴에 오픈한지 석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단골이 생겼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데 사람의 발길이 끊긴 원도심에 매장 오픈을 한다고 하니 주변에서 많이 말렸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우선은 맛과 재료에 자신 있었고, 원도심의 가능성을 믿었다. 코로나19? 지금이 그 전보다 안 좋은 상황이라면 더 좋아질 일만 남은 것이니 걱정 없었다. 그렇게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의 스타트업 챌린지를 통해 '내 손으로 만든 내 가게'를 열었다.

처음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동문시장에 들렀던 이들이 찾아주길 바랐다. 지금도 그렇다. 그런데 거기에 주변 상인들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처음에는 호기심에, 두번째는 맛에 반해 찾는 모습을 보고 달달이 다푸아즈 외에 매일 먹을 수 있는 베이커리 메뉴도 준비하고 있다. 간단한 요거꺼리가 될 수 있는 스콘, 마들렌, 까놀레 등이 그것이다. 지역주민이 찾아주자 원도심에 대한 생각도 더 각별해진다.

이 원도심을, 철성로가 예전의 영광을 되찾는데에는 딱 하나의 히트상품이면 충분할지도 모른다. 그 히트상품이 섬마을 과자점이 되겠다고 다짐해본다.



섬마을 과자점의 1호 단골 건물주 강나금

한동안 죽어있던 골목 잠자던 건물에 상큼한 간판을 단 섬마을 과자점이 들어오자 골목이 다 밝아졌다. 그 모습에 맨 처음 싱글빙글 했던 이는 다름 아닌 건물주 강나금씨였다. 한 때는 제주에서 가장 잘 나가던 거리였는데 이제는 지나는 사람이 없어 임대가 되지 않고, 설사 되더라도 몇 달 못 버텼다. 건물이 비자 골목은 더 칙칙해졌고 더 사람이 찾지 않았다. 계속되는 악순환에 건물주 등에 이고 있는 것 마냥 마음이 무거웠었다.

그때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가 문을 두드렸다. 임대료를 깎아달라, 당분간은 올리지 말아달라, 서류에 싸인을 해달라 등 요구사항이 많았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차분하게 들어보니 이들의 취지가 옳았고 목적이 같았다. 그래서 '상생협약'을 맺었다. 내 건물이 아니라 골목을 살려 동네를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친구와 계약을 했다. 생글생글 미소를 머금고 있는 젊은 사장의 얼굴에서 대번에 이번 가게는 잘 되겠다고 판단했다.

건물에 들어온 매장이 잘 되어 건물의 가치도 올라간다. 철성로는 전통적으로 목이 좋은 곳이기에 골목에 좋은 매장 몇개만 있으면 금세 예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 또 동문시장이 가까워 그곳을 찾는 이들이 길 하나만 건너게 할 수 있다면 원도심 전체가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건물의 가치는 더 커진다. 그래서 섬마을 과자점 매장을 올려주기 위해 한번이라도 더 찾고, 주변에 더 소개한다. 맛도 좋는데 모양까지 예뻐 점점 입소문이 나고 있다. 섬마을 과자점이 잘 되는 것이 건물주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부디 다른 건물주들도 크고 넓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공실이 없어야 건물주에게도 이익이다. 그러려면 임대료를 낮춰 젊은 창업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방법이다.



천천히 은은하게 빠져드는 마걸, 원도심과 민화

금정아트 민화공방

민화, 들어봤지만 서양화화에 비해 익숙하지 않다. 외국에서는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민화 클래스가 유행이라는데 정작 우리는 민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어릴 적부터 쉽게 만져온 크레파스, 물감, 파스텔, 색연필 같은 서양화의 재료가 아닌 한지와 붓, 안료, 아교를 사용해 그리는 민화는 조선 후기 서민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그림으로 소박하고 순수함이 특징이다.

복을 기원하거나 귀신을 물리치는 행운을 위해 그렸던 민화는 다산, 화합, 장수, 출세 등을 기원하는 따뜻하고 긍정적인 감성을 담고 있다. 전통재료가 주는 편안함과 멋스러움, 아름다운 도상으로 가득한 것이 원도심을 닮았다. 그리고 원도심에 민화를 직접 그려 소장하거나,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생겼다. 가장 원도심다운 매장, 금정아트 민화공방이다.

공예와 그림에 관심이 많았던 청년은 우연히 민화전시회에서 민화의 묘한 매력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4년 전부터 민화를 파기 시작해 탐라순력도를 그려 제주를 주제로 개인전을 열기에 이르렀다. 그림을 그리면 그릴 수록 제주의 역사를 공부해야 했다. 목관아와 관덕정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니 원도심은 더욱 정이 갔다. 제주의 문화, 예술이 화려하게 꽃피웠던 이곳에 매장을 내고 사람들에게 민화를 알리겠다는 결심이 섰다.

목관아에서 산지천까지, 목관아에서 서부두까지 이어지는 그 길이 서울의 북촌이나 전주의 한옥마을처럼 전통이 살아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 가장 우리다운 것이 가장 힙한 것이 된 요즘, 제주의 문화와 역사를 스토리텔링 해 제주를 민화로 담아 간직해보길 바란다. 민화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민화를 배운 적이 없어도, 미적 감각이 없어도, 손재주가 없어도 금정아트 민화공방에서라면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 그린 이의 마음과 염원을 담아 익살과 해학이 넘치는 그림으로 제주를 기억해보자.



제주사람들이 마음을 나누던 음식, 떡

코삿

제주 음식은 모두를 위한 서민의 음식이다. 특히 쌀이 나지 않는 제주에서 떡은 제사와 잔치 때만 특별히 먹을 수 있었던 귀한 음식이기도 하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이웃에 기쁘거나 슬픈 일이 생겼을 때 돈이 아닌 떡을 해 부조를 하곤 했다. 민초의 궁궁한 삶이 만들어낸 제주의 전통이자 역사다.

관광객들이 제주에 와 사가는 오메기떡. 그러나 그들이 사는 떡은 제주식이라 할 수 없다. 오메기떡은 그 이름에서 말해주듯 오메기, 즉 차조로 만드는 것임에도 그저 이름만 따온 찹쌀떡을 제주의 것이라 알고 사가는 것이다. 먹거리에 들어있는 제주의 지형과 풍토, 역사는 삭제되고 그저 이름만 남은 것이 안타까웠다.

코로나19로 실직했지만, 이는 그동안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젊은 사람들도 즐겨 찾을 수 있는 떡, 거기에 이야기가 담겨 먹으면서도 재미있는 떡을 만들어 간편한 한끼가 되기도 하고, 고급스러운 선물이 되기도 하는 제주식 떡을 선보인다. 특히 고려시대로 그 역사를 거슬러가는 상웨떡은 제주사람들이 즐겨 먹는 양하를 넣어 고운 빛을 내기도 한다. 친정엄마가 외할머니에게 배운, 외할머니가 또 외할머니에게 배운 제주 속송편도 준비되어 있다. 부담없는 가격에 제주의 문화가 살아있는 제주 전통떡, 원도심에서 만날 수 있다.

제주 원도심에서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이경호 팀장



창업은 어렵다. 하지만 창업이 아니라면 꿈을 이루기는 또 어렵다. 세상을 좀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 아이디어 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그 아이디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토양이 필요하고, 적절한 햇빛과 거름이 필요하다. 창업가의 마인드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디어가 아이템이 될 수 있도록, 아이템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은 토양이 필요하고 처음에는 소비자가 되었다가 궁극적으로는 팬이 되어줄 햇빛 같은 지역 주민도 필요하다. 또 초기 자본과 이후 성장자본을 만들어 거름이 되어줄 투자자도 필요하다.

창업가가 제주에서, 특히 제주 원도심에서 창업을 꿈꾼다면 다양한 관계로 조언을 주고 받으며 혼자 고민이 실체가 되게 하기 위해 온 세상이 도와주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 원도심은 높고 낮았다. 하지만 제주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곳이다. 이 이야기에 가치를 더하면 콘텐츠가 되고 이는 곧 비즈니스의 가능성이다. 원도심의 콘텐츠를 활용해 원도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원도심의 가치를 살리는 비즈니스라면 제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창업 아이템이 되기에 충분하다. 특히 사람의 역량을 키우고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간과 거리를 되살리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함께 창업가의 뒤에 든든하게 버티고 있을테니, 부디 용기를 내시라. 아이템만 확실하다면, 원도심의 다음 핫플레이스는 당신 차례가 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울 것이다.



바다로 이어진 부산과 제주

끄티 탐동

1970년대에는 제주출신이 전 인구의 40%를 차지했고, 지난 지방 선거에 구청장으로 출마한 세 사람이 서로 다른 인연으로 제주출신이었던 부산 영도는 제주의 가장 가까운 육지다. 지금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지만, 한때는 그또한 섬이었던 영도는 부산항과 근접해 부산 중에서도 가장 부산다운 지역으로 일컬어진다. 제주도, 전라도, 영도의 문화가 섞여 어느 것도 아닌 새로운 부산만의 문화가 형성되어 가장 부산다운 로컬리티를 가진다. 그 지역색을 백분 살려 코워킹 스페이스 <플랫폼 135>, 빈 물류창고를 전시와 공연, 네트워킹 허브 <끄티>, 빈집을 관광객이나 예술가를 위한 숙박시설과 활용한 마을리조트 리셉션 <비탈> 등 영도에 새로운 쓰임을 고민하던 RTBP(돌아와요 부산항에, Return to Busan Port of the 알파벳 첫 자)가 제주에 진출한다. 제주의 관문이었던 서부두의 <끄티 탐동>이 그것이다.

오랜 시간 제주 사람들이 뿌리 내리고 살아 거리 곳곳에 제주의 조각이 뿌려져 있던 영도의 야심찬 창업가가 다음 지역으로 제주를 생각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끝'이라는 경상도 사투리를 그대로 옮긴 '끄티'가 제주의 시작 서부두에 <끄티 탐동>이라는 이름으로 자리잡은 것 또한 그렇다. 영도와 탐동은 닮은 점이 많다. 둘 다 섬에 자리한 항구도시로 해양성과 육지성 모두를 가졌다. 바다를 면하고 있는 곳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 지형적 특성은 경계가 주는 긴장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충족시킨다. 끝과 끝이 만나 새로운 연결,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끄티 탐동>은 육지의 문화가 제주로 들어오고, 제주의 로컬크리에이터가 육지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이 되고자 한다. 영도가 기획자, 디자이너, 기술자들에게 임팩트를 주기 위해 다소 전위적이었던다면 제주의 <끄티 탐동>은 지금의 트렌드와 문화를 그대로 반영해 대중적인 전시와 공연을 준비한다. 이는 과거 제주조선이 소유

했던 공간 안에서 뿐 아니라 서부두 앞 광장으로 확장해 주변 상인들과도 다양한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한다.

영도에서 그랬듯 제주의 원도심도 제주 사람들의 흔적, 역사가 살아있다. 이곳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 개인사와 이들간의 관계, 즉, 커뮤니티가 살아있다. 원도심이 여전히 매력적인 이유는 인위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관계 때문일 수 있다. 그 생동감있고 에너지넘치는 관계를 기본으로 다양한 성향의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끄티 탐동>의 목표다. 단순히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이 대상인 것이 아니라 매장을 축대로 서부두 앞 광장과 원도심 전체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육지와 섬의 크리에이터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협력이 이뤄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길 바란다.

당신이 로컬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라면 <끄티 탐동>은 당신과 당신의 콘텐츠를 더 넓은 대륙에 소개할 것이다. 당신이 로컬 콘텐츠를 즐기는 소비자라면 <끄티 탐동>은 새롭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당신을 설레게 할 것이다. 당신이 그저 제주의 바다를 보며 사색에 잠기고픈 여행객이라면 <끄티 탐동>은 좋은 와인과 안주를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원도심을 사랑하는 주민이라면 <끄티 탐동>은 그때 제주의 시작이던 서부두의 활기를 작은 공간을 넘어 광장까지, 광장을 지나 원도심 전체에 번지게 할 것이다.



제주의 시작 | 건입동

제주를 비행기로 육지와 연결하지 못하던 시절.
제주를 오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 선편 뿐이었다.
제주항은 1927년에 개항했다. 제주성에 있던 돌을 모아 방파제를 쌓았다.
1735년에는 지금 그 자리에 제주사람들의 힘으로 산지항을 건설했고,
더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 탐라시절에는 바로 그 자리에 건입포가 있었다.

제주항은 제주공항이 생기기 전 제주로, 탐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고 바로 이곳부터가 제주였다.
건입동은 제주의 시작이다.

해방을 맞이했을 땐 징용 갔던 이들이 이곳으로 돌아왔고, 한국전쟁 때는 이곳을 통해 피난했다.
제주박 사람들에게 제주항과 건입동은 낯선 섬생활을 기대하게 한 곳이고
제주사람들에게 이곳은 마음 놓이는 고향바람을 느끼게 하는 곳이다.

그 옛날부터 제주사람들을 대신해서 외지인을 환영하고, 제주인을 배운한 마을.
이 오래된 마을이 늙어가고 있다.
이 늙은 마을이 허물어지고 있다



언젠가는 과거가 될 현재를 기록하는 방법은 없을까?
 어르신들의 구술을 기록하고, 사진을 찍고, 드론을 띄워 영상을 남기는 것도 물론 필요한 아카이빙이지만
 좀더 21세기다운 혁신적인 아카이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마을 도시기록 아카이빙은 여기서 시작했다.
 곧 다른 건물로 대체되어 다른 추억이 쌓이게 될 건물들을 3D 스캔 방식으로 남겨
 언젠가는 시도될 메타버스 플랫폼의 콘텐츠로 만들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 기술을 통하면 물리적으로 담은 허물어지지만, 특정한 플랫폼에서는 추억을 고스란히 재현할 수 있게된다.
 스캔한 데이터를 가공하면 VR, AR 영상이 되어 온라인에서 과거의 건물 내외부를 체험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프랑스의 노트르담 대성당에 화재가 났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성당은 화마로 침탑과 지붕이 무너져내렸다.
 하지만 앤드루 탈롱 교수가 생전에 몰두한 노트르담 대성당의 3D 스캔 데이터로 예전 모습을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각 건물의 표면 위치정보는 물론 5mm 크기의 세부장식까지 완벽하게 재현해낼 수 있다.
 이미 약 40여개의 유럽 고건축물이 이 기술로 디지털 복원되었다.
 대형문화재와 유적 복원을 위해 3D 스캔이 적용된 세계 최초사례는 우리나라에 있다.
 2008년 화재로 전소된 송례문 복원에도 이 기술이 도입되어 화재 전과 같은 재료에 질감과 치수를 살려 복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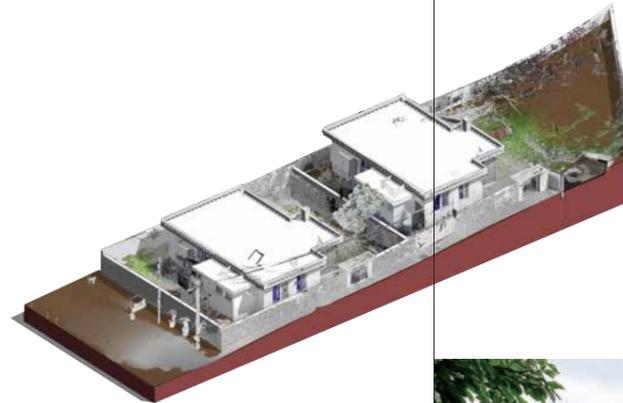
건입동은 마을회관, 산지등대, 돌봄센터와 문화예술공간과 같은 주민공용시설이 리모델링되거나 신축될 예정이다.
 30~40년 넘는 시간이 쌓여있는 공간을 포크레인이 미련없이 허물어버리기 전 3D 스캔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다.
 뉴딜사업을 진행하며 2022년, 2023년에는 건입동 전체를 스캔해 현재를 남겨 미래에 전할 예정이다.

언젠가 제주의 2021년이 살아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올려 시간여행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그 안에 투닥거리며 정을 나누던 이웃들과 나누던 시간까지 고스란히 남길 바란다.

영원히 남기는 어린 시절 추억과 마을의 역사 건입동 마을 도시기록 아카이브 - 3D 스캔

드론이 물건을 배달하고 무인자동차 상용화가 손에 잡히는 듯 가깝다.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지는 세상의 변화에 사람들은 잠시 감탄하다가 이내 적응한다.
 한편으로는 낡고 오래된 과거에서 위안을 얻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어른들은 어릴 적 추억을 되새기고, 젊은 세대는 경험하지 못한 과거를 새롭게 받아들이며
 뉴트로(Newtro)를 최근 몇년간 가장 핫한 트렌드로 만들었다.

과거의 외형을 본따 만든 디지털 제품, 더 편리한 디지털 제품에 밀려 사라졌다가 재출시되는
 턴테이블이나 즉석카메라 같은 제품들이 이런 트렌드를 반영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리는, 골목은, 건물은 이런 재현이 불가능하다.
 살던 이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집은 낡았다는 이유로 허물어지고 번듯한 새건물로 바뀐다.
 어릴 적 기억이 살아있는 구불구불한 골목은 주차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곧게 새로 놓인다.
 그러면서 추억도 기억도 함께 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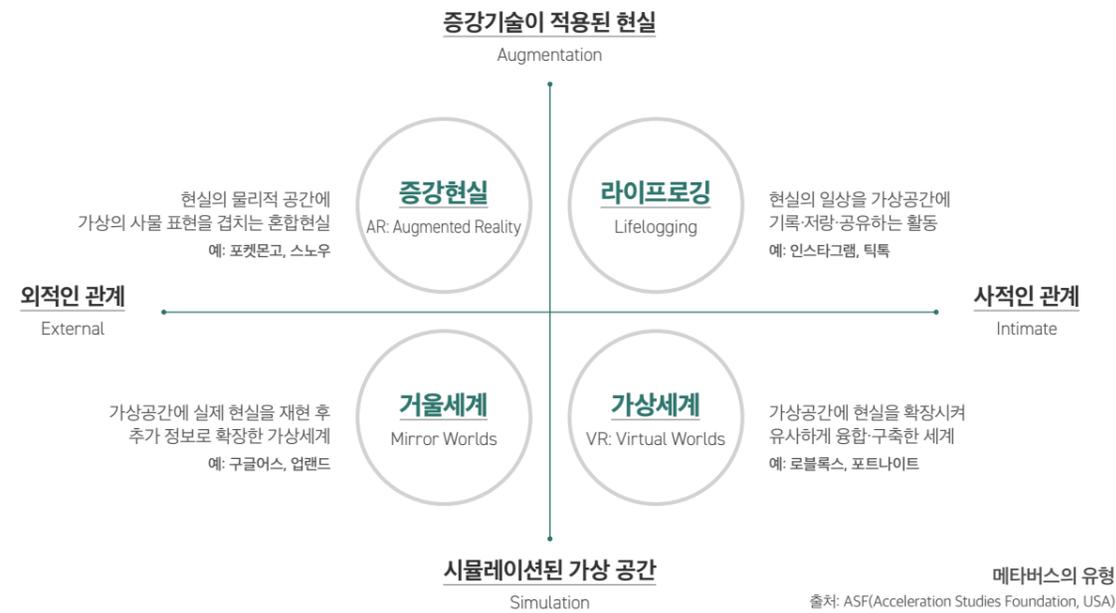


새로운 문명의 시작 메타버스 Metaverse

메타버스 Metaverse는 닐 스티븐슨 Neal Stephenson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 Snow Crash」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초월,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 Meta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 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과 흡사한 사회·문화·경제활동이 통용되는 3차원 가상세계로

정의한다. 최근에는 누구든 메타버스를 말하며 전 세계적 화두가 되고 있지만 아직은 각각의 산업에서 정의하는 바도 다르고 메타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급속히 변형되면서 그 의미 또한 바뀌고 있다.

미국의 기술연구단체인 ASF(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는 기술과 이용자 간 관계를 가로축으로, 기술과 현실/공간 간 관계의 스펙트럼을 기준 삼아 아래와 같이 분리하였다.



기술을 넘어 결국은 사람 건입동 주택돌봄서비스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말은 이제 식상하다. 최근 몇 십년간 개발된 기술과 이를 통해 생성된 지식은 인류 문명이 생겨난 후 수천년간 쌓아온 것보다 많다고 한다. 실제로 우리는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매일 경험하고 살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지 않으면 당장 생활에 불편을 겪는다. 인공지능이 기사를 편집하고, 로봇이 음식을 서빙한다. 그런데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며 우리는 더 행복해질까? 일자리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기술의 발전은 변화에 적응이 빠르지 못한 어르신들을 소외시키기 일췌하다. KTX는 인터넷으로만 예약이 가능하기에 노인들은 표를 구

할 수 없다는 하소연이 대표적인 예다. 이럴 때 더욱 필요한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보편적 돌봄이다. 특히 많은 불특정 다수가 모여사는 도시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사회적 시스템을 통한 돌봄이 건강한 생활을 꾸려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고령사회에 접어들어 대한민국에서, 노령인구가 많은 원도심에서 이는 우리가 원하는 원하지 않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속속 생기고 있다. 행정의 기준에 맞춰 사람을 고용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려 하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마을 사정에 서툰 이주민이거나 외부인인 경우가 많다. 도시재생사업의 목

또 메타버스는 연속성, 실재감, 상호운영성, 동시성, 경제흐름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경험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며, 실재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메타버스에서 경험하고 실행한 결과가 현실세계와 연결되고 여러 사용자와 동시에 활동 가능해야 한다. 아울러 자체 경제 생태계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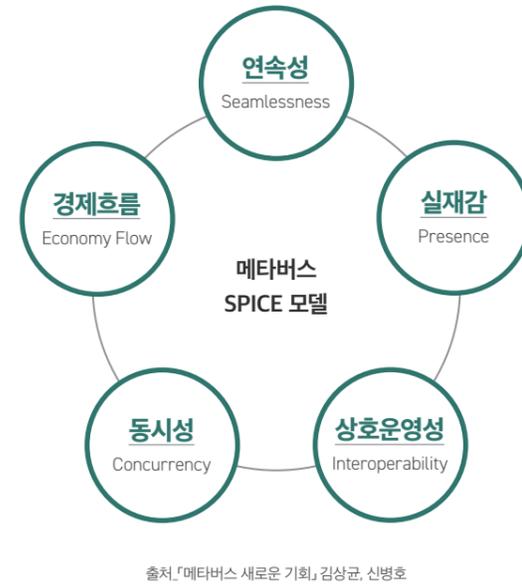
메타버스는 원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동시에 모여 소통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려 결혼식 등 대형행사를 열 수 없었던 때 닌텐도 게임 <동물의 숲>에서 가상 결



혼식을 열거나, 콘서트, 팬 사인회 등을 열곤 했다. 또한 물리적 공간, 설비에 관한 막대한 비용을 줄여준다. 짧은 시간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건물이나 도시를 세울수도, 부술수도 있다. 현재는 가상의 공간에서 동시에 여러 아바타가 만나 소통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 가상의 공간에 시간 개념을 덧대면 미래뿐 아니라 과거로도 갈 수 있다. 새 건물이 올라가기 전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음은 물론 이제는 터만 남은 여러 역사적 공간에 대한 재현도 가능하다.

넷플릭스의 콘텐츠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게임으로 개발되고,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게임을 즐긴다. 이는 유튜브를 통해 다시 재생산된다. 이렇듯 플랫폼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것이 콘텐츠화 된다면 오프라인 상의 사업뿐 아니라 교육콘텐츠로, 관광콘텐츠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로 확장될 수 있다.

스마트폰은 혁명이었지만, 메타버스는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존재하는 기술만으로도 충분하다. 문제는 콘텐츠다.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콘텐츠로 축적해야 할 때다.



표, 주민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역에 생겨 번듯한 건물이 올라간다고 주민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깜박이던 전등이 고쳐지는 게 더 삶의 질을 올릴 수 있음을 건입동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잊지 않았다. 구멍난 방충망을 수리하고, 떨어진 문고리를 고쳐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을 일상에서 느끼도록 했다.



우리는 언제나 서로의 짐이고, 또 힘이다. 지금의 기술로 현재를 기록하고 있는 건입동도시재생지원센터가 어르신들의 집을 돌보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온기를 느끼게 하는 것은 그저 일방적인 돌봄이 아니다. 이 활동은 센터의 직원들에게 어르신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들의 역사를 사업에 반영하게 한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새로운 건입동을 마음 속에 먼저 품게 될 것이다. 기술 뒤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하게 되면서 우리 동네, 건입동이 어떤 도시인지, 무엇을 어떻게 재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서로에게서 찾을 것이다.

다양한 주체들이 어울려 만든 일본에서 가장 매력적인 마을

일본 나가하마 쿠로카베 長浜 黒壁

일본 시가현 滋賀県 동북부에 위치한 나가하마 長浜 시는 일본의 중앙에 위치해 오랜 기간 교통의 요충지이자 전국의 도매상이 몰려드는 곳이었다. 400년이 넘는 시간동안 700여개 점포가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이곳이 1970년대 중반 이후 유통구조의 변화로 하나둘 폐점 하더니 10개도 채 남기지 않고 모두 문을 닫았다. 수백년 국제무역도시였던 도시가 무너지는데에는 채 15년도 걸리지 않았다.

이 죽은 마을을 되살린 것은 지역주민과 토박이 상인들이었다. 드높았던 명성이 사라진 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시장을 되살려보려는 간절함으로 시작한 일이었다. 1900년에 검은색 회반죽으로 마감되어 '검은벽 은행 黒壁銀行'이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건물인 다이하쿠산주은행 第百三十銀行 나가하마 지점을 거점 공간으로 삼아 유리박물관으로 재생시키면서 쿠로카베 스퀘어 1호점이 탄생했다. 곧 주변의 공장과 교회도 벽을 검게 칠하고 검은 기

와를 올려 일본의 전통가옥 양식을 보존했다. 버려진 가게는 미술관이 되고 박물관으로 변신하고 공방으로 꾸며 골목에 심미적 정체성을 부여했다. 이 쿠로카베 스퀘어에서 검은 아이스크림과 검은 롤케익을 먹기 위해 연간 220만명의 사람이 찾는다. 이제 빈 점포는 찾을 수 없다.

상인을 주축으로 주민들이 힘을 보태 마을만들기 조직을 꾸렸다. 청년들도 모임을 만들고 어르신들과 손을 잡았다. 노인들의 일자리를 고민하는 모임도 생기고 지역 유지들은 자금을 보냈다. 이렇게 자생적으로 생긴 주민조직이 50개가 넘었다. 이들의 마치츠클리 まちづくり, 마을만들기 움직임은 통했다. 마을이 살아나자 유럽 작가들이 찾아오고, 타지로 나갔던 젊은이들은 고향으로 돌아왔다.

나가하마시는 2단계 계획으로 주민주도의 마치츠클리를 도왔다. 처음엔 상가 주변 도로와 교통시설, 대중교통을 정비하고, 공원과 녹지를 늘려 상권 활성화를 꾀했다. 이후 2009년, 시는 신기본계획을 통해 상권보다는 '살기', '일하기', '쉬기', '배우기' 등 거주민의 행복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진행중이다.

나가하마 쿠로카베의 사례는 제주 칠성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주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콘텐츠와 칠성로의 스토리텔링을 담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쇠퇴한 지역의 물리적 환경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 인문학적, 사회경제적, 역사문화적 특성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제주 원도심 칠성로에 다시 숨이 돌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에 더하는 감성

대정의 몽이 이모티콘



지금들 사는 사람들이 손에서 절대 놓지 않는 스마트폰. 그 중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메신저 앱에 대정의 캐릭터 '몽이'가 떴다.

대정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더라도 이모티콘을 통해 유쾌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청보리, 마늘, 자리, 방어, 추사 김정희 등 대정의 특산품을 재미있게 담았다. 보통의 브랜드 홍보 이모티콘이나 지역 홍보 이모티콘이 홍보에만 집중해 빈도가 떨어지는 이모티콘을 제작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몽이 이모티콘은 물건기 방어를 '방어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물고리 자리를 '물건이나 사람의 위치'를 뜻하는 자리로, 멸치의 제주어 '멜'을 '멜랑콜리'의 멜로 표현하는 이중적 언어유희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정에 긍정적 감정을 갖도록 유도했다. 거기에 낯선 제주어가 주는 재미까지 선사하고 최근 트렌드에 맞는 감정, 상황 표현을 넣어 쓰임새가 많다.



친구들과 제주여행을 계획하는 채팅창

대정에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환영하는 몽이의 모습



이번 제주여행, 대정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



제주시가 아니라 대정?

'왜?'라는 뜻의 제주어 '무사?'를 귀엽게 표현

지역 축제로 인지도가 있는 모슬포 최남단 방어축제를 홍보. 단순하게 축제에 오라는 표현보다 이 축제에 대해 모두가 알고 있다는 전제로 2차원 간접적인 표현



방어 축제를 한데. 가서 방어 배터지게 먹자!



좋아!

채팅창에서 상대의 의견에 동의할 때 사용하는 표현의 극대화

대화창에서 뽀낼 때 쓰는 표현



내가 방어 쓸게!



그, 그래.. 고맙다.

대화창에서 어색함을 나타내거나 민망, 머쓱한 상황을 글자 없이 몽이가 청보리밭에서 눈치보는 것으로 표현

대화창에서 할 말이 없을때나 지루함, 말을 시작하기 위해 입을 푸는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



대신에... 니가 숙박비 책임져.



뭐라고??? 그런게 어딴어?

방어축제의 물고기 방어를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는 의미의 '방어한다'로 전환해 방어를 들고 공격을 막아내는 표현. 상대의 부탁에 대한 거절을 가볍게 표현할때 사용

대화창에서 상대에게 불만이나 폭력을 표현하는 것으로 몽이가 마을을 세계 씬는 표현



숙박비!



숙박비라니...

처음의 귀여운 몽이에서 정색하며 진지한 분위기를 만드는 유머러스한 표현

오래된 미래, 새로운 과거 그리고 다시 도시재생

유희동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얼마 전 인터넷에 정부가 수도권 과밀현상을 상쇄하고자 서울-수도권 이남 4개 권역의 초광역 '메가시티' 출범에 속도를 낸다고 한다. 행정구역을 넘어서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 협력'에 대한 세제·재정·교통·산업 등을 전폭 지원하여 수도권 과밀화와 맞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고 한다.

대전·세종·충북·충남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그리고 부산·울산·경남권 이렇게 4개의 권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특례를 마련하고 광역교통망을 구축하여 자족생활권(주거+생활SOC+일자리)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수도권 과밀화 및 쏠림 현상 극복을 위한 해결책이 또 다른 과밀화를 만들겠다는 식으로밖에 이해가 안 간다. 물론 균형발전이라는 프레임으로 보자면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자 교통환경을 극대화하는 것은 결국 산업경제 활성화의 연장선으로만 보인다.

이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탈산업화가 아닌 산업화를 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닌지 반문이 생긴다. 최근 서울과 부산의 정책인 '15분 도시'는 매우 흥미롭고 좋은 소식으로 생각되지만 정작 '15분 도시'의 핵심은 거리와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작은 단위에서의 삶을 누리는 문화 조건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미약해 보인다.

건축가 승효상이 소개한 프랑수아 아셰(Francois Asche)는 '도시는 성장과 팽창을 목표로 두고 가는 메트로폴리스가 아니라, 지속과 연계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메타폴리스가 돼야 한다고 한다. 기능, 효율, 속도, 결과보다는 서로 간의 연계, 개념, 느낌, 과정이 필요하며 미래를 향한 끝없는 개발과 팽창의 가속도 보다는 현재의 삶의 질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그리고 그가 말한 상징적인 '메타시티(Meta city)' 개념은 아마도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바꿔 버리는 폭력적인 도시개발 속에서 도시는

일상과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라는 본질적인 인문학적 성찰이 절실하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세계는 이미 도시의 성격을 외형적인, 산업경제 위주의 메가시티, 메갈로시티의 한계를 인식하고 가장 시급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탈 탄소, 탈석탄을 표방하는 대규모 도시정책보다는 소규모 친환경적인 생활환경을 위한 탈산업화 개선정책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와 경제를 합성한 신조어인 '웨더노믹스(Weather+ Economics)'시대가 도래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 강국 한국의 탄소 배출량은 세계 9위 이다. 탄소 의존 경제로 성장해왔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아직 발전소가 지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 글로벌 투자회사의 투자금 철회가 있었다고 한다.

왜 그럴까? 우리는 6.25 이후, 하나의 패러다임만으로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배고픔과 집 없는 설움을 극복하고자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이라는 격변의 시대를 뚫고 온 프레임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각 회사의 이윤추구가 스며들고 가열되면서 가속하는 기차는 멈출 줄 모르는 채 더 많이, 더 크게 만을 쫓아가는 듯하다.

우리는 이러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한 것은 아닌가?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 줄 것이 축적된 경제적 부유함이 전부인가? 그들에게 건강한 터전과 공평한 기회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나?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이 곳을 떠나 달나라로 멀리 가는 것이 아니다. 당장 급급하여 편협한 시각으로 문제를 바로 해결하여 만드는 미래가 아니다.

다시 말해 선택되는 미래가치는 지금 여기서 찾아야 내는 것이며 그것은 과거로부터 새롭게 발견되는 문맥과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도시재생은 낡고 오래된 것을 편



리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 하지만, 지나친 속도와 경제발전이라는 단일한 프레임 때문에 우리가 간과한 것이나 보지 못한 우리의 일상을 스스로 찾아내어 희미한 주체를 복원하고 함께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불편한 집을 짓겠다던 어느 건축가의 말이 생각난다. 편리함 속에 사라진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불편함으로 찾을 수 있다는 그의 궤변이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 것도 같다. 편리한 시대가 음흉해 보인다. 당장 편리함을 위해 많은 문제가 가려지고 있다. 거대해진 것을 속도만으로 해결하고 있고 지나친 속도를 위해 우리의 삶이 터전이 병들어가고 있다.

초거대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캠퍼스, 모빌리티, 3D프린트, 양자컴퓨터 등등의 낯선 것들이 조만간 도래하겠지만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단지 신기술과 일종의 새로운 장치가 만들어졌다는 의미 이외에는 없다. 그보다는 더욱 근본적인 이 새로움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의 범위 안에서 녹아들게 할 것인가? 가 더 중요하며 우리의 일상이 새로운 것들에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미래는 우주에서 오는 메시지가 아니다, 현재를 반성하고 과거의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맥락에서 오는 것이다. 과거-현재-미래는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시점에서 과거를 뒤돌아보고 미래를 여기, 이 안에서 만들어야 한다. 지나갔다고 혹은 잘못됐다고 지우거나 버리고 새로움을 선택하는 위험은 언제나 산재하여있음을 주의하자.

기존의 방대한 압축성장의 속도로부터, 재개발 정책으로부터, 대량생산-대량소비로부터, 전략적 부동산 경제로부터, 치열한 문화 예술시장으로부터 멀어진 조그만 골목길에서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소중한 일상을 새롭게 만들고 함께하는 개개인들의 자발적 의식으로부터 시작되는 도시재생을 기대한다. 그로 인해 우리의 재생은 과도하고 거대한 세상의 혼란으로부터 떨어져서 우리만의 조용하지만, 행복한 시간의 속도를 찾아내기를 바란다.

시간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속도와 방향에 관해서는 이번 원고를 통해 개인이 만들어가는 느낌의 중요함 그리고 과거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지나간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또한 미래를 유토피아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닌 디스토피아(dystopia)도 가능할 수 있음을 말하고자 했다.

개인의 습관이 마을의 이야기가 되고 고전(역사)이 되는 의미와 지나친 현대사회의 팽창과 속도에 대한 반문을 가지며 세상의 중심을 나로부터 만들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이 도시재생이 꼭 만들어야 할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제주시 원도심 창업생태계 조성사업>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최우수상' 수상**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0월 27일 경남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일대에서 열린 '2021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유휴공간과 창업지원자를 연계하여 원도심 유휴공간 8곳을 신규창업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성과를 거둔 '제주시 원도심 창업생태계 조성 사업'은 비즈니스 모델 발굴 워크숍, 유휴공간 상가 임대차 상생협약 체결, 창업시 사업화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공실이 된지 오래된 상가에 활력을 불어넣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탐라의 중심, 제주의 관문 - 용담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제주 관문 원도심권의 재생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및 고품질의 삶의 가치 향상이라는 주제로 2022년부터 4년간 제주시 용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된다. 오랜 역사를 품은 부러리 마을재생 등 용담동의 역사와 문화, 공동체를 재생할 이번 사업은 공공복지서비스 재생, 주거환경 재생, 마을경관 재생, 골목상권·마을공동체 재생, 스마트마을성장이라는 5대 목표를 세워 차근차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제주시문화도시센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멜삭 포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제주시문화도시센터는 11월 26일 산지천 갤러리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멜삭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공간의 문화적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을 주제로 기초강연과 2개의 세션이 진행되었다. 정석 시립대 교수는 '로컬에서 더 행복한 사람들',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소 원장은 '도시재생의 실험과 도전 : DIT 재생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제1세션에서는 지난달 개최된 '제주-서울 이니셔티브 멜삭, 리뷰와 지역 크리에이터들의 활동 사례를 살펴보고 제2세션에서는 기초강연과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 되었다.



**월평마을 80~90대
어르신들이 그린 그림이 벽화로 활짝!**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꽃을 주제로 월평마을 80~90대 어르신들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10종의 벽화를 그려 마을환경을 개선했다. 7,8월 어르신 미술 수업으로 완성된 작품을 바탕으로 도안이 완성되었고, 그림을 그린 어르신 개인 집 앞에 벽화를 그려 의미를 더했다. 그림수업과 벽화를 통해 어르신들의 마음 꽃을 피웠으며, 월평마을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도 화사한 꽃이 따뜻함으로 전달되기를 바란다.



**도시재생 지역혁신 주제 발굴, 도전과 과제
- 2021 도시재생 현장포럼**

지난 11월 26일 도시재생 상생모루에서 도시재생 지역혁신 주제를 발굴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개최되었다. '로컬의 혁신가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의 가능성'이라는 대주제로 전국 도시재생 현장사업 사례 중심의 오전 세션에 이어 '지역혁신의 매개자, 도시재생 스타트업 헬린지'라는 주제로 제주에서 직접 추진했던 프로젝트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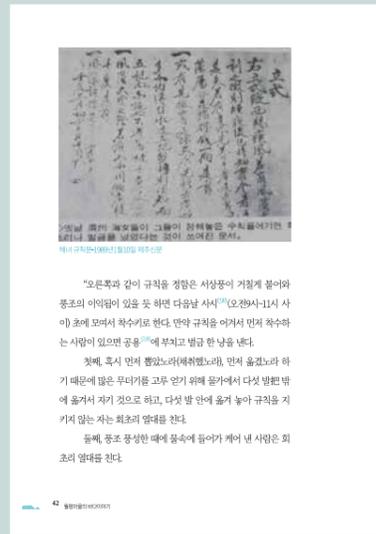
2022년을 위해 2021년을 정리한 아랑조를 천지동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지난 11월 25일(목)~27일(토) 3일간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21년 천지동 주민들과의 도시재생 활동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홍보전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홍보전시와 연계해 (사)탐라문화유산보존회 윤봉택 이사장의 <남극노인성 메이킹스토리> 강연과 이에 착안한 미디어아트 천체쇼로 지역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월평마을 바다 아카이빙 콘텐츠 「서귀포 월평마을 바다와 사람이야기」 제작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는 월평마을 바다와 관련된 주민의 경험과 기억을 구술채록하고, 이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과거 마을의 생계수단과 현재 어업 활동을 기록으로 남겼다. 월평마을은 현재 어업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월평마을에도 어업은 중요한 생계방식 중 하나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귀포 월평마을 바다와 사람이야기」는 과거 어업 마을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월평마을의 어업권 찾기에 보탬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발간되었다.



아왜낭목 제로웨이스트 피크닉

“월평 아왜낭목 땅바닥에 멜삭 앉은 좋다이”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는 주민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월평마을의 유휴공간인 아왜낭목을 활용하여 지구별가게와 함께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행사를 진행했다. ‘들벵디 마을 제로웨이스트 피크닉’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일상생활 속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맞아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행사 중 월평마을의 주민은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했다. 피크닉을 즐길 뿐 아니라 행사 진행을 위해 기념품의 포장지로 사용했다가, 집에서는 행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소창을 자르고 박음질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방문객들과 함께 나눌 비건음식을 준비하는 등 행사의 주제로 참여했다. 일회용품 없는 행사는 불편하기도 하고, 수고스럽기도 했지만, 집에 있는 밀폐용기와 그릇을 가져와 환경을 위해 움직였다는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다.



월평마을 마을상품기획_반단이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제주 전통 반단이(궤)를 활용한 기념품 개발이 진행 중이다. 제주 전통 반단이는 제주도만의 투박하고 큰 장식으로 대표되며, 최근 고가구로 다양한 곳에서 인테리어로 쓰이고 있다.

딸을 낳으면 멀구슬나무를 심어 시집 보낼 때 이 나무로 반단이를 만들어 보낸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반단이를 통해 부모님은 딸이 평생 무사 안녕하길 빌었고, 딸은 그 마음을 알기에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해도 버리지 않고 간직했다고 한다.



서귀포시 중앙동 문화기획학교 캘리그래피 & 제주풍경 그리기 전시

12월 10일(금)~17일(금) 중앙동 예술 생활展을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별관 1층에서 개최한다. 첫 번째 열리는 이번 전시는 문화기획학교(미술편)에서 9월 17일~12월 2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주민협의체 회원들 상대로 캘리그래피, 제주풍경화그리기 작품 활동을 하였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주민들의 중앙동내 예체능 사업에 관심이 지속되길 바란다.

중앙동 예술 생활展

'중앙동 문화기획 학교'에서 주민들이 창작한 작품(캘리그래피 & 제주풍경화)을 전시합니다.



고순애 김명옥 김미자 양종열 오명필 이경희 이은선 조은희 주정신 이광자 지연주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별관 1층
2021.12.10.금 - 12.17.금
문의 064 733 2004



월평마을 한라봉 직거래 장터 개최

서귀포시 월평마을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구성된 '월평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 3월 클라우드펀딩에 이어 2022년 설 명절에 맞춰 1월중에 온-오프라인 직거래장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터에서 판매될 작물은 월평마을의 주요 재배작물인 한라봉이며, 온라인으로는 서귀포in정과 라이브커머스를 통하여 판매하고, 오프라인 장터는 올레 7코스와 8코스가 만나는 월평마을 아왜낭목에서 간단한 시식 행사, 한라봉 표정 그리기 등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월평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인스타그램(@wpcoop20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행일 2021년 12월 8일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칠성로길1) 발행, 편집인 유희동
기획, 편집 안목 디자인, 인쇄 디자인아웃 문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064-727-0617 홈페이지 www.jejuregen.org

<이름, 제주>에 실린 글, 그림, 사진 등의 콘텐츠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